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 정 섭 담양군수

"노인복지 증진 최선"

올해 이정섭 담양군수의 최우선 군정과제는 노인복지 증진이다. 담양군 노인인구는 20.9%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노인복지증진이야 말로 담양군의 당면 현안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저소득·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식 제공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요양

친환경단지 3천ha 조성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된다. 또 '복합노인 복지단지'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지니스형 복지모델로 조성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자활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에도 관심과 지원을 기울인다는 것이 이 군수의 복안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문제 해결도 올 한해 이 군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중의 하나다.

벼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첨단 시설원예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나서 목표연도인 2009년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인 3천ha가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된다.

축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전국 제 1의 한우촌 명성을 확고히 다지면서 임산물의 소득화 사업도 추진된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역점 시책이다.

먼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등으로 읍지역 상가 활성화에 앞장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

서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환경친화적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계 도로교통망 확충과 오지·정주권 개발 사업 등은 지역 발전전략과 상호 연계 추진,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관광·레저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는 이 군수가 올해 관심을 갖는 분야다.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체험·체류형 관광패턴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담양지역 관광산업도 변화를 맞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맞춰 담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문화·관광자원 등 유·무형 자산을 수요자 중심의 관광 상품으로 적극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죽녹원

관광·레저 산업 육성

등 대나무숲 중심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키면서, 통나무 팬션 단지 등 '담양호권 관광지 개발사업'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역을 상징하는 '대나무 축제'는 전국적인 향토문화 축제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체험관광 등 지역소득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수요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수 중심의 군정 운영 시스템도 과감하게 개선된다.

이 군수는 "금년을 지역통합의 원년으로 삼아 군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장성 '나노산업' 메카로

진원·남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나노생물실용화센터·연구소 설립

장성 진원면과 남면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나노 기술 지방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진원면과 남면 일대 27만평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구랍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장성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됐다.

이에따라 지난 2005년부터 진원·남면 일대를 나노지방산단으로 육성하려던 장성군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장성군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성 나노생물실용화센터'를 설립, 나노생물소재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개발 추진, 나노 관련 전문기술 양성 및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학연구소 등 연구단지와 나노기술 산업용지, 배후주택단지 및 근린공원 등을 세워 나노 기술산업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군은 오는 2월 이 지역이 '나노기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공영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나노지방산단이 조성되면 3천800여 명의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에 따른 군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영암 사랑 상품권' 내달 8억어치 발행

'영암 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

영암군은 "지역 상가를 이용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다음 달 중순께 이 상품권을 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내에서만 유통될 이 상품권은 5천 원과 1만 원권 2종류로 올해 초 8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금융기관 선정, 상품권 디자인,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산수유와 물까치 산수유 나무에 앉아 있는 물까치의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한다. 산수유로 유명한 구례군 산동면 상위마을에는 빨갛게 익은 산수유 열매를 따 먹으려는 산새들로 멋진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생활·여성 복지업무 강화

구례군이 최근 군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 조직을 개편했다.

구례군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다.

면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여성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또 기획감사실 법무와 감사 담당은 법무감사담당으로, 재무과 세정과 과표 담당은 세정담당, 건

구례군 조직개편 건설관리 통폐합

설과 건설관리와 지역계획 담당은 지역계획담당으로 각각 통·폐합했다.

이밖에 종합민원처리과와 장수복지과는 각각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문화관광과 관광예약담당은 폐지하고 정보통신담당과 지역경제담당, 교통행정담당은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재난관리과로 각각 옮긴다.

한편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해 6급 전문위원 한 자리가 증설 된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전/북/소/식

고창군 도로개량사업 '최우수'

고창군이 '2006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 돼 국비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군은 지난해 26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군도·농어촌도로 15개 노선 4.4㎞에 대한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1개 노선 0.5㎞에 대해 선형개량사업을 벌였다.

군은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계에서 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최우수군의 영예를 차지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창지역의 관광 벨트화 구축과 농산물의 신속한 운반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 '오베이골' 탐방로 개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창고인돌유적과 운곡지구 주봉인 화시봉을 연결, 숲속을 산책할 수 있는 오베이골 탐방로가 개설됐다.

탐방로 주변에는 서산산성과 용계리 청자요지 등의 문화재와 산지에 둘러싸인 호수, 상여바위 등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다.

오베이골은 오방골의 전라도 사투리로 호비골, 호비등, 오방골, 오방동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끝난 사업' 또 보조금 타내

감사원, 담양 대나무 산업체 적발

담양의 대나무 산업체가 이미 완료된 사업을 새로 추진할 것 처럼 꾸민 계획서를 제출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D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8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이 보조금으로 갖춘 설비 등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사실을 적발, 보조금을 회수할 것 등을 담양군에 요구했다.

D사는 2004년 7월과 지난해 5월 죽력 제조 설비라인 구축과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사업(탄화로 증설) 추진 사업계획서를 제출, 각각 3억원과 5억원의 보조금을 군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조금을 받기 수개월 전 이미 이 사업들을 끝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이 업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갖춘 죽초액 생산설비 등을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21억8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보조금 8억원을 회수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군수 승인없이 제공한 담보를 다른 담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대나무 신산업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공무원 5명을 주의 조치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